

8.15 맞이 기념

원폭에도 살아남은 일본의 잡신 800만과 천황 사상



지종(농대 56)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일본인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승전한 일본의 제국주의의 일한 희생자이다.

▶**구상에서 원폭을 맞은 유 일한 나라** =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폭 투하로 2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도시는 폐허가 되자 일본의 인원은 즉시 무조건 항복했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시대 제국제를 타파한 최초 국제조약인 '미일 화친조약'이 1854년 3월 3일 미국의 강압으로 이뤄진 후, 일본이 세계의 문호를 개방하며 점차 서구화되었다. 아시아와 서구화에 성공하여 강대국으로 일본 군사제국이 됐다.

정식 실권은 정인원과 군부. 정제는 정부가 지원한 미쓰비시 등 재벌이 장악하고, 일본의 경제 체제는 살아있는 신 천황사상 체제. 한국과 중국을 위한 아시아 전역을 침략하고 수탈과 만행을 저질렀다. 세계 패권의 불균형이 아시아에서 치욕스러운 미국이 일본에 서욕을 강요를 차단하는 등 제 패권을 가하게 되었다.

▶**진주만 선제공격** = 다급해진 일본은 미국을 선제공격 후 미국과 다시 협상하고자 하는 무모한 계획으로 미국의 태평양 해군 기지가 있는 진주만을 1941년 12월 7일 정공적 선제공격을 하였다.

미국은 황제의 도움인지, 아니면 미국의 정세가 여러 정파와 정치 세력들이 국민연대를 일으키기 위해 일본의 선제공격을 유도하는 계획이었는지, 태평양 함대 투척인 항공모함 3척과 대공전함은 혼란을 틈타 바다로 나가 있어 일본의 전투만 공격이 진주만 내에 있지 않았다.

미국인은 분노하여 미국의 저명한 일정한 대량 생산체제로



십신을 숭배하는 일본 사람의 하나

군비를 6개월만에 재정부 하고 백마디 극동사관학교 취회 해 일본에 저지한 반대로 제해권과 제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상대가 되지 않는 일본 군국체제는 미국에 선전 포고 후 3년 만에 패전 것이다.

▶**두모란 도망이 패망 원인** = 종교면에서 일본의 최초 국제조약 '미일 화친조약' 이후 91년간에 패망함으로써 살아있는 신 천황과 일본의 잡신 800만, 기독교 국가인 일본의 신천지에 들어오므로 기독교의 부흥도 사라졌을 것이다. 제2차 대전 종전 후 실정적으로 일본을 통치해왔던 제국주의 일본을 통치해왔던 일본은 자신적 지주인 히로시마 전후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전 세계에 사투지 않고 단자 제국 체제는 일본 천황에 대한 황을 정교와 종교수권에서 단제하고, 단제 통치권인 상징적인 원형으로 있게 되었다.

▶**일본을 전범으로 처했다** = 만약 아시아 정세가 히로시마 원폭을 전범체제로 제국주의로 제국주의로 오늘 일본의 정치는 전범 자유 세계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국수주의적인 국수 대외관(2차대전 때 최고 사투지)인 '일본의 화가 정조적으로 일본 하루

“일본은 기독교 사상 결여로 만민복적 전략행위의 죄책감없이 이를 정당화 하고 역사교육 교육으로 자라는 어린이들을 또다시 죄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까지 조직되었으니, 일본을 자라는 신도제 종교단체인 합해 800만 명의 후원인으로 국수의 아와 내는 국부종교가 대공과 하였을 것이다.

일본은 기독교와 서구화 모델로 마스마르크스의 뒤를 배하여 정해, 일본 제국주의를 전진화되었던 전략정적으로 인해 패망하였다.

세계 제2차 대전 패전 후, 독일 사투지는 철저하게 일본 국가에 대해 아시아와 속죄하고 패배 정향하게 된, 일본정부는 이와 대역 사투지 사상과 제국주의 전략정정을 정당화 하고 평화헌법을 제정 '천황제'로 복귀하고 교과서를 고치 다시 국수주의로 고지하고 있다.

▶**800만의 잡신** = 일본에서 나라 = 원인은 무엇인가. 일본

는설위원 칼럼

막을 수 있었던 한반도 분단



고병철(병대 55)
미주 동향회보 =는설위원
일리노이 주립대 명예교수

필자는 얼마 전에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글 알리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한반도의 분단이 당시 소련의 태평양 전쟁개입 이후 불가피했다는 통설이 정화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일 Truman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었더라면 소련군의 한반도 정령을 북위 41도에서 막을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이것은 저자가 전문적인 역사학자가 아니고 잘 알리지 않은 출판사에서 발간된 American의 종교면에서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에는 종교 아닌 종교 신도(神道)는 신사 사원이 20만

ica's Parallel (Michael C. Sandusky, Old Dominion Press, 1983)에 나와 있는 사실적인 공개문서(declassified) 미국 정부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의 수비대는 이라 반 화장을 거게 되는데 - Cairo, Teheran, Yalta, the Potsdam - 전쟁이 종료되기 직전에 열린 Potsdam 회담에 Truman 대통령과 Stalin은 조차 참여하여 Churchill and 그들 교배한 Attlee와 태평양 전쟁의 종료와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Truman은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Berlin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곳을 이미 정령화되었던 소련군들의 약탈(looting)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후 Stalin의 연설을 관할하면서 그는 전후에 소련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러한 배경은 1945년 8월 19일에 일본군에 대한 포로교환을 하고 한반도 동북부에서 일본군과 한

권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모델 제키스트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권을 택하였다.

당시 설립되었던 오크포 토시미

치는 남북을 양적으로 고치고, 친일이 단합하고 영리를 국어로 하며 서양인과 결혼하여 인종 개량을 주장하고,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모 복합인이 가장 좋아하던 폐지하였던 제국인 압살되어 그 추종책이 되었다.

▶**황을 잃은 신으로** = 제국주의 바티칸을 이어받은 이교도도 수많은 서양 문명은 철저히 반아들이고 일본의 전통 문화와 신도교로 일본과 다른 교회를 살아 있는 신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이 통일되는 제도의 서상에서 통일 국가의 영웅적 통일을 한 것이 신사라는 독창성을 발전 시키기 기독교 포로를 원한 공화함으로서 제국주의 세계시각과 제국적 기독교가 뿌리 내리게 되었다.

일본은 피도전적 사투지는 되었어도 서구문명의 핵심인 기독교 신자 천황제 만민복적인 전략행위를 죄책감없이 사투지를 가지고 역사교육과 교과서를 편찬하는 어린이들을 또다시 죄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는 너무나 다른 편** = 독일의 기독교의 위치는 기독교교도도 많이 교회회를 떠나

를 개신한 후인 8월 12일에 그가 미 합참의장과 해군 참모총장에게 보낸 메모에 반영된다.

그 메모에서 Truman은 일본이 연합국에게 투항할 소련군이 이미 패전을 안고있고 미국의 대연(大連)과 한반도의 항구를 무조건 점령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표명했고 합참의장과 해군 참모총장은 그 의견에 동의했으나 MacArthur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MacArthur의 계획안이 후속 실행이 되고 미군정부는 두달 일본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함경도에 진입한 소련군은 예상대로 치열한 일본군의 저항 때문에 9월 14일에 정전 이후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다.

8월 15일 현재 소련군은 북위 41도에서 정제된 것이었다.

만일 Truman의 계획을 존중하여 미국 1개 사단이 투입되었던 한반도의 분단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MacArthur는 그 후 한국전쟁에서 UN군 총사령관이 되어 인신복복작전을 저지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미군정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게 된 것은 Truman은 군 부총관리(Comander-in-Chief)로 인정하지 않은 그의 사투지와 오만한 영웅적 사투지인 비극이 아니 수 없다.***

고 있긴한 독일정부는 7%의 종교세를 국민소득부터 받아 기독교와 천주교에 나누어 주어진다는 특혜의 실정조를 내지 않기로 인정하고 결의이내 강제는 교도나 신도에게 사투지 신사부가 하고, 독사 불교도 정부에서 지출한다.

이러한 제도가 기독교의 확해를 감시하기위한 세제적인 유한한 신자들과 제국주의 신천지체제로 종교교와 학회의 발전과 태행하여 새로운 종교의 종교관 확립에 공헌하고 있다. 제국주의(독일인)는 2천년 전 로마인들에 의해 개화되고 역사의 흐름을 돌고 반향하고 있다. 끝이 아닌 기독교교도 되었도 마틴루터(독일인)의 종교개혁 후 새로운 개신교 신도 주자로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장시 히틀러의 등장으로 2차 대전 중 제국주의 민족의 야수성이 살아나 유럽인 학살이라는 비극을 저지르지만 패전 후인 유속 살아 있는 기독교 정신이 살아나 일본에는 달리 처한 정치 속도와 참칭도 역대수상들이 패배국으로 잘치 사투지를 돌고 반향하고 있다. 끝이 아닌 제국주의를 비판해 보았고 그 후손들은 기독교가 제 기념비를 세우고 있으며, 교과서를 자신들의 과포를 숨겨주기 기독교 하여 다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후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끝이 아닌 제국주의를 비판해 보았고 그 후손들은 기독교가 제 기념비를 세우고 있으며, 교과서를 자신들의 과포를 숨겨주기 기독교 하여 다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후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전쟁한 서구 문명의 핵심인 기독교 사상에 근간한 전략행위에 대한 합회와 제국과 깊은 관련성을 계속하면 미래의 일본은 아시아와 세계에 시 고립화되고 불평등한 침략의 비극이 울지기도 모른다.***



서울대미주센터 및 서울대병원 미주 사무소

위암과 계몽주의 주제 포럼 열려

서울대 미주센터 및 서울대병원 위암 예방법과 조기 발견에 따른 치료효과 상상에 관해 강의했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의 '기주'에 따르면 위암에 걸린 여성 가운데 53%가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조기 발견할 경우 치료에 가능한 암 단계에 대한 치료의 기회를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A를 방문, 위암 예방법과 조기 발견에 따른 치료효과 상상에 관해 강의했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의 '기주'에 따르면 위암에 걸린 여성 가운데 53%가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조기 발견할 경우 치료에 가능한 암 단계에 대한 치료의 기회를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동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위암 전문의 강현환 교수가 위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해 강연하고 있다.

이시진 대표 '왕의 남자' 영문판 출간



호림 영문출판사 대표로 'The Clowns' 출간, 장작 노벨상 수상을 돕는 것이 목표

"한국도 노벨문학상을 받는 나라가 돼야지"

영화로 제10회 무리 1320만명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화제작 '왕의 남자'의 원작자 최익대 '이'의 영문판 출판을 유치한 호림 Hollym International Corp. 대표를 맡고 있는 이시진(문리50) 동문이 받아 화제다. 이시진은 한국의 대산재단으로부터 출판 기금을 얻어 지난 6월 미국내에서 김대중 작가의 희곡 '이'를 'The Clowns'란 제목

으로 출판한 장작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작가 배춘을 돕는 것이 목표다.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이시진과 배춘 동생이 합동하고 있는 'The Clowns'는 대산재단 번역상을 받은 켈 커먼(Will Kern)이 번역한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대표는 "노벨문학상 후보가 되려면 미국 출판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항상 번역이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는 기회가 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69년 도미한 이민 1세대로 모교와 동 대학원에서 독문학 전공 후 독일에 유학했으며 미국에서 도서판매를 공부했다. 뉴저지 Ken 대학에서 전문사(Professional Librarian)로 일하며 1977년 호림영문출판사를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어 서적을 영문으로 출판했다. 특히 최근 저술한 '미국에서 사는 순화'는 미국에서 출판한 미국인과 한 문화 영어-한국어 이중 언어로 사적으로 기록돼 있다.

현재 뉴저지 엘리자베스 한인교회(담임목사 소제인) 소신전교회장도 맡고 있다. 호림영문출판사: www.hollym.com

김한진 변호사 대형 로펌 합류

'리 애네트 청 최이도 & 김' 미국 최대 규모의 소수계 로펌 가운데 한 곳



김한진 변호사는 "LA·뉴욕·시애틀·멕시코시티 등 4개 사무실을 두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회사"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앞으로의 의뢰인들에게 더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힘입어 말했다.

이 로펌에는 김 변호사와 함

계 일하러 또다른 한인 이영수 변호사도 수석 변호사로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모교를 나와 오하이오 주립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효성 동문 SF에서 가야금 연주회



정효성(모교 유대 국악과 졸업) 동문의 가야금 연주회가 지난 7월 13일 오후 7시 샌프란시스코 메리디언 갤러리

(Meridian Gallery, 535 Powell St)에서 열렸다.

정효성 동문은 가야금 산조뿐만 아니라 현대음악 연주에 도전한 것으로 평가돼 장악음악, 월드 뮤직 등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야금을 배운 정효성 연주자는 모교 유대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 뒤 서울대 부산대에서 후학자를 양성하는 한편 가야금 솔리스트 JIL, 최희관·한규진 동문악기 뮤지션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PEC 2005 정상 만찬 문화공연 가야금 독주, 제4회 백남준 기념 연주회(2010), 가야금 작곡가 박명환의 작품연주(2012) 등의 무대에 선 바도 있다.***



유히자 회장 전통예술 첫 공연

보급 14년만에 오는 9월 7일(CSUN) 첫 발표회, 창작 가야금 연주, 춤 문화학과 전통음악·무용 선행 계획 벨리의 한인사회로 축제로 마련

캘리포니아 유히자(유대 국악과) 국악무용연구소 유히자 원장이 오는 9월 7일 오후 7시 갈스미에트 노스리지 내 놀라자 빌딩에서 첫 공연을 개최한다.

이 공연을 앞두고 유히자 원장과 40여 명의 문화생들 모두 한 마음으로 선행과 흥분 속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유히자 국악무용연구소 산하에 지난 4월 창단된 '송아니 무용단'과 2년 전 설립한 '정기공연'과 '전통무용' 단원들이 모두가 자신의 일익을 다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이른바 벨리 한인사의 건제의 큰 축제가 될 전망이다.

"필요하면 믿는 것이 믿어지고, 하지만 제정신을 다치지 않고 염두를 뒀는데 무용의 많은 제자, 학부보, 진지들이 힘을 모아 행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설 좋은 공연장에서 발표회를 하게 돼 너무 기쁩니다."

한국 무용가로 가야금 연주자 & 작곡가인 유히자 회장은

'전통예술 한양당(Tradition in Motion)'이란 주제의 이공연에서 작곡, 가야금 연주, 장막한 작품들을 선보임으로써 오랜 세를 중단 할아은 그의 열망과 그의 재창조한 대한 한국 예술의 맛을 보여줄 예정이다.

모교 유대에서 가야금을 전공하고 갈스미에트 노스리지(CSUN) 대학원에서 작곡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전통문화와 무용으로 서양음악과 조화를 통해 창조한 국제적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7세부터 71세에 이르는 문화자 40여 명은 유 원장과 함께 가야금 합주, 무용춤·오동춤·전주·타악기·장구·소금·전도박·타악·삼소리 등 15개 전통악기와 무용을 보인다. 이 중 '한국의 전통' '사조' '무용단은 하트코' '동일기원

←첫 발표회를 갖는 유히자 원장과 송아니무용단 단원들, 왼쪽에서 세번째가 유히자 원장이다.

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등은 유 원장의 창작곡이다.

'태평강 갈매기'는 장석원 시인이 작사하고 유히자 원장이 작곡한 작품이며, 통일기원 푸른 6.25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제작된 작품이다.

가야금 연주에서는 장구 반주 20곡 12현 가야금과 25현 가야금·아쟁·양금이 함께 연주하고, 사물놀이 변형인 '다들'이 '여사'는 장구·북·장대·장고·고로에 아드리프가 드림인 고로가 함께 새로운 장단을 소개한다.

또 '후 레이지드'며 '여사'는 소프라노 테리 조씨가 노래하고 트럼펫 연주자 오릭한(전 서울시청 단원)씨가 가야금, 피아노와 색다른 합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유히자 회장은 4세 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한 장석원 시인 한국 문화사절단으로 일본 문화공연도 했던 전통 무용가로, 국악 관현악단에서 솔리스트로도 활동하고 1972년 도미 후 장악과 함께 한양문화 활동을 중했다.

그러다가 1999년 국악무용연구소를 창단, 한국 무용과 문화 사절단으로 활발하게 일해 온 그는 얼마 전 가야금과 대중음악의 접목을 시도한 음반 '유히자와 가야금 작곡집'을 냈다.

이와 더불어 LA 한국문화원 30주년 기념 연극의 주역들을 작곡해 연주하기도 했다. 유히자 원장과 9월 공연에 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805)368-8728, (805)520-0897 Cal State Univ., Northridge 18111 Northridge St., Northridge, CA 91330, www.hizakordance.com, (818)456-8022***



6.25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동문들 헌화행사 및 봉사활동 퍼 임평수 총동창회장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 상대 59동기 헌화, 함은선 DC 회장 봉사

미국 정부는 6.25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인 지난 7월 27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한국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한 바 있다. 특히 비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의의를 살리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새롭게 과시했다.

이같은 정전 60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 6월 23일 임평수 총동창회장은 제22회 평화원 회의 기간 중 굿 굿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직접 찾아가 참전 전몰 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헌화를 했다.

또한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은 정전 60주년 기념일인 7월 27일 행사장을 찾아 참전 용

사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해 하고 미주 동창회 이류으로 참전 전몰 용사들에 대한 기념 헌화를 했다.

이와 별도로 상대 59학번 동기 9명은 이미 5년 전부터 매 주일마다 헌화를 실시하고 있다. 박용수 두산중공업 회장, 박영주 이진산업 회장, 김향덕 SK그룹 고문, 김승만 한미DC 회장, 배정운 한국철강신문 회장, 심준석 이코네티리얼리티 대표, 한병무 삼화광로 회장, 상하인 한화그룹 부회장, 그리고 박정호 전 한국증권협회 회장 등이었다.

지난 2009년 8월에 시작된 헌화 릴레이는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상대 59학번 동기생들의 이같은 헌화 사연은 동창회보 지난 7월호에 차례로 게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함은선 워싱턴 DC



동창회장과 임평수 역시 7월 27일 행사를 위한 자원봉사에 나섰다.

이날 자원 봉사단은 기념공원에서 기념 타월을 제공하고 한국전 관련 영상물, 한국 전쟁 문물공헌, 리틀엔젤스 공연 등의 행사 진행에 관한 행사장 봉사를 실시했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세리토스시 선언문 발표

세리토스시 의회는 지난 7월 24일 정기모임을 갖고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7



1사진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임관수 총동창회장(오른쪽)이 정평수 미주 동창회 사무총장과 함께 기념 헌화,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의 미주 동창회 명의의 헌화, 함은선 DC동창회장의 7.27 봉사활동 모습. 상대 59학번 동기 9명의 헌화.

월 27일을 '세리토스시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선포를 재확인하고 행사에 참석해 시 의회 선언문을 전달했다.

세리토스시 조제진(사대 61) 시 의원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 한국을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을 영원히 기리고 한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 미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아직도 전쟁상태가 계속되

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해올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7월 27일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에 제정한 후 세리토스시에 대해 지방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다음 해인 2010년 7월 27일을 '세리토스시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The Family Counseling Center of Greater Washington

워싱턴 가정 상담소

1952 Gallows Road #206, Vienna, VA 22182

Tel: 703-761-2225/6

Fax: 703-761-2227

E-mail: counseling@fccgw.org

http://www.fccgw.org

이사장: 정인숙

상담사: 안정민 (농대 87, Monica Lee, M.S.)

전주영 (Charlie Jun, M.A.)

행복한 가정

건강한 청소년

희망찬 사회

전국에 있는 한인 상담소와 동문 상담사들과 네트워크를 갖기 원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세요.



미네소타 동창회

상반기 행사 정리한 소식지 발간

미네소타 동창회(회장 변우진 (인문대 81))가 소식지(SNU Alumni Association Minnesota News)를 발간했다. 이 소식지는 첫 이사회부터 피아니스트 강주연, 동문 자선연주회, 불명 대회, 춘계 야유회, 연대·고대 와 합동 체육대회, 동문 동창 등을 다루고 있다.

▶이사회= 지난 3월 9일 경향 남 동문 자택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올해의 사업으로 4월 학생 동문 미팅, 5월 말 3개교 친선 체육대회, 6월 미국 평의 회의 참가, 7월 2차 이사회,

8월 신입생 환영회, 9월 친선 골프대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타 안건으로 맨토-멘티 프로그램, 동창 소식지 발간(연 2회) 등에 대해 협의했다.

▶강주연 동문 자선 연주회= Iowa Northwestern College에 교수로 피아니스트인 강주연 동문이 바킴경(성 88) 동문의 음악학원 돕기 연주회를 3월 23일 Bethlehem Lutheran Church에서 열었다. 바킴경 동문의 Redemer Music Academy는 가장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를 위한 학원이다.



↑왼쪽 사진은 불명대회 후 입상자들이 함께 한 장면이고 오른쪽 사진은 3개 대학 체육경기 모습이다.



▶불명대회= 동문 가족 등 36명이 참가한 가운데 3월 2일 한 불명대회를 U of M Coffman Union Goldy's에서 개최했다. 연대·단재·여성·주니어·아자상

등으로 나누어 시상했다. ▶춘계 야유회= 지난 4월 17일 동문 가족 62명이 참여한 춘계 야유회를 Falcon Heights Community Park에서 열었다. 동구

·주구 등 운동 경기와 가벼운 산책, 맨토-멘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대·고대 와 합동 체육대회 = 5월 18일 3M Tartan Picnic Park에서 연대·고대 와 함께 3개 대학 합동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우리 동문 및 가족은 총 63명으로 골프대회, 보물찾기

와 명랑 운동회 등으로 우리 서울대기 지난 해에 이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불명 동점 = 이윤경(의류 97) 동문과 박정원(물리 97)·박정원(영문 00) 동문 부부, 남궁선(물리 95), 홍승술(경제 90)·한진희(외교 92) 동문 부부가 동창회로 새로 나왔다.

▶귀국 ▶이상관(계산통계 89)동문은 안식년이 끝나 국민대 교수 복귀 ▶변지원(공문 91) 동문은 안식년 마치고 광명대 복귀 ▶유영훈(사대 94) 동문 = U of M HR과장 마친 후 LG 생활건강 귀사 <리점> ▶송인명(약대 84) 동문 = 중앙대 조교수 임명 ▶박창원(물리 89) 동문 = 노스웨스트 수석연구원 ▶이상호(생물 90) 동문 = 광명대 조교수 임명 ▶정창진(화공 97) 동문 = U of M Post-Doc 수 삼성로널 임사 ▶민서하(의류 04) 동문 = U of NC 조교수 임명 ▶송세진(치대 78) 동문 = Edina에서 개업 <결혼자> ▶변우진 동문 = 자녀 U of 미시간 <정후영 동문 = 모친상 ▶김태환(의대 58) 동문 = 모친상 <이주> ▶박상진(공학 71) 동문 = 텍사스주 이주***

<송우 이주일>



밴쿠버 동창회

김홍자 회장 일행 모교 동창회 방문

밴쿠버 동창회의 김홍자 회장 내기가 박병우 서울 사무총장과 함께 지난 5월 20일 교우회가 모교 동창회장을 방문하여 임광수 총동창회장(공대 48), 손인길 상임부회장(의대 51), 공대식 부회장(공대 56)으로부터 오찬과 함께 큰 환대를 받고 귀국했다.

김홍자 회장 일행은 모교 총

동창회가 준공한 SNU 장학빌딩 준공(2011년 11월), 메리타스 홀 개관(2012년) 등 최근 동창회 사업 소식과 모교의 정세상 및 경제상을 확립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창기 사업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해 따르면 모교는 '7개학 1895년에 통합 개교 1946년

↑김홍자 회장 일행이 임광수 총동창회장과 환담후 기념촬영했다.

으로 정리했다.

모교 총동창회 임광수회장은 공대 48학번으로 연세가 올해 86세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이래 현재까지 건강하고 왕성한 사업가 동창회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김홍자 회장 일행은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밴쿠버 동창회는 요청 사항으로 지난 해 진의했던 동창회

회보의 직접 발송 등 지원을 요청했다.

동창회 지부소속 변경 건에 대한 총동창회의 방침은 캐나다 내 4개 지부가 합의해서 '캐나다 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예, 미주 본부와 같이 들어가면서 지부 대표를 맡는 방식처럼 운용하는 등) 캐나다 지부를 미주 본부로부터 독립해서 운용하겠다고 하던 분리, 독립 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송우 주부호>



시카고 동창회

골프대회 및 하계 야유회 가자

시카고 동창회(회장 한희일·공대 62)가 지난 5월 25일 골프대회를 연 데 이어 6월 29일 Elk Grove Village에 있는 Busse Woods에서 하계 야유회를 가졌다.

▶골프대회= 지난 5월 25일 Willow Crest Golf Club(Oak Brook Marriott 3500 Midwest Road, Oak Brook)에서 춘계 골프 대회를 실시했다. 다음은 입상자들이다.

◀남자> ▶Gross Champion: 신택수 ▶Net 1등= 신택수 ▶2등= 배영심 ▶3등= 한재은 ▶4등= 왕진원 ▶Longest= 신택수 ▶정승규 ▶Closest= 신택수▶ 왕진원 <더지> ▶Gross Champion= Anne

↑한 세 사람은 하계 야유회에서 동문들이 함께 한 장면이고 오른쪽 사진은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이 Willow Crest Golf Club에서 골프대회 후 기념촬영 한 것이다.

구(Mrs. 구경희) ▶Net 1등= Doo-jung전 (Mrs. 전현일) ▶Longest= Nancy Park(Mrs. 박영규) ▶Closest= Anne구(Mrs. 구경희)

• 신택수 동문은 혼자서 샅을 너무 많이 받아 자석에게 샅을 양보하는 미덕으로 보였다.

▶하계 야유회= 6월 29일 Elk Grove Village의 Busse Woods에서 하계 야유회를 가졌다.



한국에서 시카고 방문자 들은 동문들을 포함, 100여명의 동문 및 동문 가족들이 참석하여 쾌적한 날씨에 불구하고, 제이 폴로기, 닭고기와 콩지 바비큐를 곁들인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오랫동안 만난 동문들끼리 서로 환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 후에는 임현제(의대 59) 동문이 리드하는 던넬스 퀴즈 맞추기 대회에 모두 응모하는데 화기애애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시카고 동창회의 다음 큰 행사는 7월 말 있었던 장학회 모임 공

고에 이어 이를 심사해서 앞으로 12월 1일(토요일)에는 장학성으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을 포함해서 시카고 동창회 연말 총회와 송년 파티를 갖게 된다.*** <동창회 부회장 김호빈>



뉴욕 동창회

관악회 및 단과대 회장 초청 바비큐

뉴욕 동창회 박상원(음대 69) 회장은 지난 7월 4일 미 독립 기념일을 맞아 뉴욕 지역 대학 연대 동문들을 자택으로 초청해 친목을 다지는 파티를 가졌다. 이어 7월 20일은 각 단과대학 회장들을 초대해 상견례를 겸한 친목과 화합 결속을 다지는 바비큐 파티를 가졌다. ▶관악대 초대= 박상원 회장은 뉴욕지역 관악연대 동문

들을 자택으로 초청해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며, 관악연대 회원들과 친목, 유대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회장은 "한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모교는 동동동시대의 관악연대가 멀리 있는 느낌이라 세대간 화합이 동창회에서는 바비큐 파티를 가졌다. ▶관악대 초대= 박상원 회장은 뉴욕지역 관악연대 동문

박상원 회장은 단과대 회장단(옛 사진) 및 과대학회(오른쪽 사진)들을 자택으로 초대해 동창회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Princeton 동 유수대학에서 박사 과정 중인 학생들과, Google-Kotra등 대기업에서 활동하는 젊은 동문 11명이 참가한 이날 모임에서 세대간 소통과 미주 서울대 전통이 그들에게 이어질 길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단과대 회장 초대= 박 회장은 "동창회의 기동인 단과대학 회장들과 서로 인사하고 일하는 것이 일의 첫번째 순서로 그레아 일도 동문들이 나고 열정



도 생기기 된다는 생각에서"라고 말했다. 이날 미주 동창회 이진구 전 회장 부부는 팔죽을 쑀어 동문들에게 대접하느라 큰 솥에 밥을 쑴다. 팔죽은 상찬을 아끼지 않는 동 일행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칭찬을 덧붙이며 모두가 실컷 먹고 남아

통에 담아 동문들이 집에 가져가고도 됐다. 이날 참석 한 일부 단과대학 회장은 간호대 김정희(69) 동문 부부, 농대 이진구(60) 동문 부부, 사대 조달문(66) 동문 부부, 수의대 김기택(81) 동문 부부, 법대 오성희(76, 세제일보 기자) 등이다.***



남가주 동창회 관악연대

동문가족 100여명 2013 여름 캠핑

남가주 동창회의 관악연대(연대학 신혜원·사대 81)가 지난 7월 20일 캘리포니아의 샌디아고 보타비 파크 옆 이스트 쇼어 RV Park에서 동문과 그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3 여름 캠핑 행사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참가한 동문의 글이다.

“광란 열곡 보고 헤이저며 친구/ 연애 밥 먹자 한잔/ 그래, 밥 먹자/ 날도 봄날인데/스. 양쪽 하나 둘도 나오나라/ 밥하고 나물은 준비하바/ 그리피스 파크드 옆 어떨고/ 어바인 파크드 언더파라/ 친구들 불러 모아 양쪽에 밥 한 가득/ 새순들은 양사물에 고추장 살기뽀뽀의 두르고/ 주저으로 써먹어 먹 비비서/ 그래, 밥 먹자/ 이 미칠 것 같은 봄날에/ 소시지 구워 먹던 사람들/ 햄버거 빼어 물던 사람들/ 궁금하다 쳐다보면/ 밥은 이렇게 모두 함께/ 양쪽에 머리 바고 한 술갈씩 미서 먹는 것이라/ 그래, 밥 먹자/ 이 미칠 것 같이 그리운 봄날엔, 이렇게 함께 모여 밥을 먹자”

송호찬 시인의 작품 ‘그래 밥 먹자’를 되새겨 쓰니다.
송호찬 시인의 삶처럼, 날이 나날 좋아, ‘이 미칠 것 같은 봄날’ 아니 여름날, ‘친구들 불러 모아 양쪽에 밥 한 가득’ 함께 나섰기 때문이죠.

지난 7월 20일 토요일, 장소는 그리피스 파크드, 어바인 파크드 아니 샌디아고 보타비 파크 옆 이스트 쇼어 RV Park.
관악 동문들과 가족, 친구, 동무들 100여 명이 함께 모여, 날, 맛있는 웃음과 노래 소리가 여름 밤 하늘에 가득 울려 퍼졌습다.

정관수 동문이 손수 기른 성실한 유기농 채소를 먹고, 주저대신 신혜원 연대장의 맛갈 나른은 끝으로 서억씨의 비비냉면 100여 명 큰 ‘관악요 양분 비빔밥’은 순식간에 품이 나고...
맛난 바비큐며 오이스터, 군

고구마와 마시멜로우, 그리고 타오르는 캠프 파이어 모닥불에 훈제곰과 양만이 한껏 녹아 들었습니다.
또 ‘런리 프라이즈(클립)’ 밴드 멤버들의 즉석 공연과 통기타 반주가 있는 ‘싱얼풍’으로 그 옛날 MT 기분 만끽하며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이날 캠핑에는 또 한국에서 미



국에 여행 왔다가 대가족을 이끌고 참여하신 이소미(사대 82)님과 텍사스주에서 오랜만에 이 행사에 함께 한 정신 동문 등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아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진 글= 박찬민(공대 81)]



남가주 수의대 동창회

박중수 동문 자택에서 친목 모임



남가주 수의대 동창회(회장 이사금·수의대 79)가 지난 6월 1일 박중수(수의대 58) 동문의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동문간 친목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번 수의대 동창회 모임은 박중수 동문의 미주 지역대 여러 주별 가운데 최근 새로 이사한 LA 소재 자택에서 갖게 되었다.

수의대 동창회는 매년 서울 모교에서 2명의 회장상을 미국에 초청해서 수의학학 졸업 선배를 병원에서 1개월간 연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20여년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번 모임에서는 올해의 연수 일정을 토의했다.

이와 더불어 모교 수의학과 대학 학장의 8월 초창에 대한 방문건과 친 회원들의 e메일 연락망 구축 추진에 대한 안건을 토의했다.

이날 참석자는 변혁근·김익수·양희관·장원석·오갑을·김영·박민식·문동식·유용규·권태상·송원표·조병진·이사금·신동국·최용준·방유식·전원혁·최재윤·양희환·이선경 동문과 그 가족들이다.

손수 음식 준비부터 장소까지도 제공해주신 박중수 선생과 사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서울대 국제 협력단 본부장과 행정지원본부에게도 감사로 드린다.***

◀동창회와 이사금(수의대 79) sam1eechm@gmail.com 949-422-3089

←남가주 수의대 동문과 가족들이 LA의 박중수 동문 자택에서 모여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위싱턴 DC 동창회

2013년 제4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위싱턴 DC 동창회(회장 함은선·음대 77)가 지난 8월 3일 버지니아 소재 'Palace' 레스토랑에서 이사진과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33대 4차 이사회 및 2013년 정기 총회를 실시했다.

▶제33대 4차 이사회: 함은선 회장이 개회 선언과 함께 2012-2013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를 했다.

2012년 사업과 행사는 2012년 7월 21일 총회를 통한 제33대

회장단 출범, 제1차 이사회(9월 9일), 서울대 SIFE 월드컵 참가 및 간담회(9월 21일), 한미 장학재단 만찬 참석·강학금 수여(9월 23일), 장애인 및 아동의 후원 및 참회(9월 29일), 제2차 이사회 및 정기 동창회(10월 21일), 모교 정복개 발발 간담회(12월 13일), 춘네파티(12월 30일) 등이 있었다.

또한 2013년 사업과 행사는 평양 파기대 박찬호 총장과 포항중대 장수영 전 총장 특별



1원목부터 함은선 회장, 장경태 부회장, 안진미 재무국장이 각각 분야에



13일), 오연현 총장 방미 간담회(4월 23일) 등을 실시했다. 이어 안진미(총대 65) 재무국장이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대해 보고 또는 사회를 하고 있다.

했다. 결산에 대한 감사는 박평일(총대 69) 감사가 실시했다.

▶정기 총회: 2013년 정기 총회는 장경태(사대 75) 부회장의 사회로 이루어졌다.

장 부회장은 개회에 이어 교가 합창, 회장 인사, 2012-13 사업보고, 결산 보고, 감사보고, 2013-2014 사업계획, 기타 안건 토의 및 광고의 순으로 진행됐다.

함은선 회장은 "회장단 일기가 제33대에서 처음으로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성심 성의를 다해 협력해 준 임원들 덕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임원들과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앞으로 남은 1년도 천복과 모교사랑에 최선을 다해 후추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2013-2014년 사업과 행사는 자선 음악회(8월 31일), 정기 동창회(11월), 연방 파티(12월), 정기 동창회 및 구경 파티(2014년 2월 19), 제5차 이사회(3월), 장재우 후원 클럽회 및 Picnic(4월) 총회(7월)

특히 이 날 주요 안건 토의가 끝난 뒤 이경선(이화여대) 박사의 초청 강연 시간이 마련됐다. 이경선 박사는 '책남은 (1932-2006)의 Artistorical Importance'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었다.***



유스톤 동창회

진기주 동문 선임 이사장 선출

유스톤 동창회(회장 이호성·음대 72)가 지난 7월 18일 서울가는 연회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갖고, 선임 이사장에 진기주(상대 60)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선임 진기주 이사장은 "전일

이사장이었던 고 유세관(공대 59) 동문의 뜻을 이어, 동창회와 지원에 성심 성의를 다할 것"을 취임사를 통해 다짐하였다.

이에 대해 이호성 동창회장은 "진기주 이사장님,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진 이사장님 덕분에 앞으로 더욱 즐거운 동창회 모임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창회 차원의 지역사회 봉사도 활발

한 편 유스톤 동창회는 윤찬주(문리대 63) 동문이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유스톤 한



1유스톤 동창회 문찬주 동문이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KCC와 Job Fair에 대한 포스터.

←유스톤 동창회의 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진기주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 커뮤니케이션 센터(KCC)에서 이번 지역 사회를 위해 동문에게 Job Fair를 개최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Job Fair는 지난 해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지난 해 첫번째 행사 때는 모두 25명의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동창회는 이같은 사업을 동문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널리 알리기를 바라고 있다.***



침단의 탐방기사



선천성 혈관기형질환(Congenital Vascular Malformation)

이병봉(외대 57)

우리 주위에 기술포나니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문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George Washington 대학의 이병봉(외대 57) 교수는 혈관 기형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이다. 그는 2001년 전 서울 삼성병원에서 미국 Johns Hopkins 대학의 외과 System을 설립하고 돌아와 현재는 지난 수십년간 그의 혈관기형에 관한 연구를 전파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우리, 일본, Non-Medical 분야의 학자들들 위해 그의 혈관기형 소개와 형식으로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보고 싶은 분은 편지까지도 연락 해 주기 바란다.

·선천성 혈관기형의 정의(외대 57)

혈관기형으로 인한 이상혈류(abnormal blood flow) 질환은 여러 가지 혈관질환 중에서도 혈관 전문의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싶어 하는 혈관질환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도 불리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혈관기형에 관한 지식이 최근까지도 동맥계에 한해서만 학제적으로 정맥계에 한해서도 한정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혈관기형을 취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정맥혈류학은 새로운 분야인 것으로 많은 노력이 부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식이 학제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다.

게다가 세균에 혈관기형과 선천성혈관기형에 대해서는 아는 정보나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혈관기형의 종류에 두분제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 태생기 후기에 생긴 trancular lesion은 이와 달리 발생하지는 않는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혈관기형에 대해 '아는가'를 알기 전엔 현 시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지를 알아야 총체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 혈관 질환의 마지막(ultimate) 도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multidisciplinary approach'의 방법들이 인정받게 되었다. 이 새로운 기술적으로도 수많은 혈관기형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되고 그 혜택을 받게 되었다.

몇십 년 만에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점에서 이병봉 박사의 학제적 발표자료를 토대로 편집자(Dr. Lee와 다음과 같은 점의 응답으로 그의 활동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다.

·Congenital vascular malformation(선천성 혈관 기형)이란 무엇인가?

원칙 사건에서 보는 두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결함(birth defect)이 될 수 없게끔에 병변을 치료하는 'congenital vascular malformation(CVM, 선천성 혈관기형)'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선천성 혈관 기형(선천성 혈관기형)은 태생기에 발생하여 태어난 후에도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혈관기형에 관한 지식이 최근까지도 동맥계에 한해서만 학제적으로 정맥계에 한해서도 한정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혈관기형을 취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정맥혈류학은 새로운 분야인 것으로 많은 노력이 부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식이 학제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다.

게다가 세균에 혈관기형과 선천성혈관기형에 대해서는 아는 정보나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혈관기형의 종류에 두분제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 태생기 후기에 생긴 trancular lesion은 이와 달리 발생하지는 않는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진문의 논설위원 건강 의학 교실

Addison's Disease<1>



차민영(외대 76)

2년 전이었다. 68세 여자가 전신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하며 원인을 밝혀 달라고 찾아 왔다.

환자를 불러들인 부신질환 호르몬(엔도크라이노)과 관련된 내분비 질환을 담당하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Dr. Lee와 다음과 같은 점의 응답으로 그의 활동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다.

·Congenital vascular malformation(선천성 혈관 기형)이란 무엇인가?

원칙 사건에서 보는 두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결함(birth defect)이 될 수 없게끔에 병변을 치료하는 'congenital vascular malformation(CVM, 선천성 혈관기형)'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선천성 혈관 기형(선천성 혈관기형)은 태생기에 발생하여 태어난 후에도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혈관기형에 관한 지식이 최근까지도 동맥계에 한해서만 학제적으로 정맥계에 한해서도 한정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혈관기형을 취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정맥혈류학은 새로운 분야인 것으로 많은 노력이 부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식이 학제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다.

게다가 세균에 혈관기형과 선천성혈관기형에 대해서는 아는 정보나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혈관기형의 종류에 두분제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 태생기 후기에 생긴 trancular lesion은 이와 달리 발생하지는 않는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혈관기형(이 사건)은 태생기에 혈관조직에 이상화 과정에서 각종 이유로 정상혈액이나 전하를 못하고 출생 후에도 남아있는 혈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름도 Thomas Edison이다)은 우리 나라와 같은 바다에 대 동양의 작가인 톨킨 스톤(Adrenal gland)이 떨어져서 거기서 생산되는 각종 호르몬들이 줄어든다. 또는 거의 생산중지되어서 이 병이 생기는 것이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해보겠다. 양쪽 콩팥(kidney) 바로 위에 2cm 정도 고광양성으로 생긴 기운이 있는게 이것을 부신(副腎)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호르몬을 만든다. 부신 안쪽으로 부신수질이라고 부르면, 부신 피의 전체질을 조절하는 Mineralocorticoid라고 부르는 호르몬을 만든다.

몸의 나트륨 중 농도(Sodium)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든다.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것이다. 이 호르몬을 만드는 호르몬은 부신수질에서 나오므로, 나트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고,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간다.

이런 두 가지 호르몬이 떨어지면 몸이 빠지고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또한 호르몬들이 하나만 부족해도 몸이 피로해진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몸이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또한 호르몬들이 하나만 부족해도 몸이 피로해진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몸이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또한 호르몬들이 하나만 부족해도 몸이 피로해진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몸이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또한 호르몬들이 하나만 부족해도 몸이 피로해진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몸이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또한 호르몬들이 하나만 부족해도 몸이 피로해진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몸이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또한 호르몬들이 하나만 부족해도 몸이 피로해진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몸이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또한 호르몬들이 하나만 부족해도 몸이 피로해진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몸이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또한 호르몬들이 하나만 부족해도 몸이 피로해진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몸이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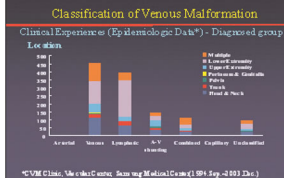
또한 호르몬들이 하나만 부족해도 몸이 피로해진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몸이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또한 호르몬들이 하나만 부족해도 몸이 피로해진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몸이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또한 호르몬들이 하나만 부족해도 몸이 피로해진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몸이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또한 호르몬들이 하나만 부족해도 몸이 피로해진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몸이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또한 호르몬들이 하나만 부족해도 몸이 피로해진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면 몸이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많이 앓고 피로해진다.



*VCM Clinic, Medical Center, Samsung Medical Center (1995-2013 Dec.)

Classification of Venous Malformation



관악새대/Acro장장

정전 60주년에 시작하는 OK(원 코리아) 캠페인 7.27 글로벌 액션



정연진(인문대 81)
액션 포럼 코리아 대표 실행위원

지난 7월 27일은 6.25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된 코리아를 실현하는 조종화란 단어를 함성이 세계 7개국, 11개 지역에서 울려퍼졌습니다.

서울 로스앤젤레스 센터에 있는 스포츠도드 워싱턴 DC에 있는 '포르토바(아르헨티나)-본시(영국), 그코의 노년과 가정에서 국내외의 문화와 'Action for One Korea(AOK)'가 주최한 '727 글로벌 액션'에 참여했습니다.

"727 글로벌 액션(지구촌 한민도 통일 한마당)"은 하나된 조국을 소망하는 전 세계 동포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준다는 사실에 착안했습니다. 60년 전 전쟁에서 각각을 이겨내며 시대를 바로 세우고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싱가포르의 현지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7개국, 11개 지역의 동포들이 구글 화상회의(구글 플러스 행사 프로그램)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패럴로스인간의 올림과 화면 연결이 순조롭게 되었으나, 지구촌 한민도를 도는 길에 각기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동시에 하나로 연결해 준 것은 자못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실시간 연결을 통한 즉각성, 현장성, 소동과 공감을 기발한 연출력으로 국내외 동포들의 통일 열기에 불을 지피고 통일 열망을 절절해 낼 수 있는 발단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AOK가 추구하는 글로벌 통일운동은 '각각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각자의 민족과 문화를 갖춘 '글로벌 통일운동'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나된 길'이라는 축제를 남한만 선배 후원한(공동 57) 시인은 달의 반쪽이를 '평화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들의 마음을 이루려 한 뜻으로 통치 가슴 두근거리려는 분투의 열의와 '인식'의 '727 글로벌 액션'은 정전 60주년을 기리는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글로벌 캠페인의 시발점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7월 27일이 기해 보충진입을 실현할

나이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이중호(인문대 81)
미술 중앙일보 논설위원

얼마 전 시애틀 여행을 했다. 50년 몸 젊은 부부 가족과 함께 고 속박하고 해 준 뒤에 꽤 비싼 여행사를 갔었다.

대니가 전 자기 지기 뒤쳐 갈만 한 곳들을 열심히 알아봤다. 어디가 좋을까, 어디를 꼭 들리야 할까, 하고.

지쳐보던 아내가 한 마디 툭 던졌다.

"당신은 아무 말 말고 그냥 있는 게 좋겠어요. 그쪽이 여전히 알아서 준비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자주 의견 내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다음엔 같이 가자고도 안할 거예요."

한 말 맞은 것 같았다. 내가 벌써 그럴까 싶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충고도 자칫하면 전술로, 군소라기 되고 심한 경우 웃소리를 흘리고 만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지만 생각해보니 맞은 말

이었다. 나도 연애의 사람이 아니라, 저러자, 자주 의견을 내놓을 뿐 그다지 편지가 많았으니까.

한 가지 더. 이전에 한국에 갔을 때. 두어 시은 KIX 열차를 탔다.

전니 편지라든 초로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는데 열차의 젊은이에게 창고도 위치 않고 말함을 하신다. 창년의 이야기, 외국 있는 자식 자랑 장황하게 기를 때였다. 독소라까지 커서 안 들으려 해도 들리는 게 어 한 시간쯤 듣고 지나니 큰 고인이었다. 나다 나이가 들면 지랄해 되려나, 살짝 걱정되었다.

누구에게나 입을 닫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그렇다. 상대방을 듣지 않고는 본인 이야기만 하는 본능 역시 대개는 나이가 더 많은 쪽이다. 뻔한 말도 하고, 또 하려는 것도 나이에 따른 사람들의 특징 아닌 특징이다. 왜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

질어는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게 아니라, '가'라고 넘겨지는데 '모든'이 가라고도 넘겨지는데 심심한 마음에 '이제'가 회가 '정기'인 '이제'라고 구구절절 늘어놓는다는 거.

물론 패셔니스마로 젊어서는 노하고 싶은 자존심은 현상이다.는 주장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로의 뇌세포는 30세를 기점으로 노화가 시작한다고 한다. 40-50대 정도는 그 속도가 갑자기 더

빨라져 발급 한 일일비도 기억이 가물거릴듯 돌아서면 깜박깜박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뻔한 말을 자주 되풀이하기 시작하는 것 역시 50세 전후부터라고 하니 전히 기억이 없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고도 노인의 다변을 나이에서 오는 기억력 감퇴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닌 것 같다.

'보레인 파우너'를 절제 하는 8가지 습관(마음 절제, 켈리 하월 공저)이란 책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열마지기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열마지기 돌보고 가꾸는 사람은 나이가 상관없이 유연성과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지 기억력도 노화를 통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참고로 몇몇 노인들을 보면 고령으로 가는 열쇠를 손에 꼭 쥐고서 어디든 자각을 계속하던 열마지기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시애틀로 출퇴근하러 댔던 말도 안된다. 하는 말을 조금 들어주지 않으면서 듣고는 있는 것이 나로서는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본래 필요한 말만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처럼 젊은이들처럼 하는 게 노년자의 책임이 아닐까 싶다.

문득 성령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한지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여는지 닫는지를 자로 여겨지고..."

"인생 2모작 '출구전략' 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 제2인생 설계



박현(농대 81)

1955년생 이후부터 1963년생까지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설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등장한다. 베이비붐 한국이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은퇴를 앞둔 50대 초중반 연령대들이 제2인생으로 어떻게 해야 은퇴 후의 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

고 있다. 많은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하고 나니 삶의 기대치가 부다는 이렇게 하면 끝이 나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있다.

물론 나이 70이 될 때까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거나 사업체가 본래에서 별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행운의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1세대는 정규직이란 행운을 갖고 있는 비율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

한국에서는 이미 50대에 들어선 사람들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미국과 기우는 현인 은퇴자들도 현재의 일터에서 벗어나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종래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50을 넘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할 것 같고

한다. "주식 투자", "보통", "도박", "실업" 등이다. 은퇴를 위해 힘들게 모은 돈을 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당장 수입이 없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노릇이다.

은퇴자들은 직장에서 퇴직하자 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의 사업을 그만두려 한다던 일을 도둑해진다. 그러다 사업이 아니라 돈을 놓고 조심스럽게 계산기를 두드려본다.

그러한 이정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생소한 일에 자금을 투자하고 실패하는 것은 모험과도 같다.

그러나 대부분 당장 코앞에 닥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장밋빛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로컬 커피의 스몰 비즈니스는 대형 사업체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종래에 따르면 창립비율 10%의 60대 5년내 문을 닫는다고 한다.

연세한 일제가 쉽게 문을 닫는 이유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사업계획이나 시장조사 자금계획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이

인식'과 대립했다. '인식'의 '727 글로벌 액션'은 정전 60주년을 기리는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글로벌 캠페인의 시발점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7월 27일이 기해 보충진입을 실현할

지 못하다 미국 보스톤 비즈니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평생을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기존 사업체를 구입해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

한국에서 교사나 군인들이 사업을 하려 실패한 비율이 높다고 한다. 바로 대인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평생 직장에서 재직하던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면 정경에는 적응이 되어 보면 속박해 대인관계가 낯설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 사업체와 함께 퇴직하고 나면 실업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평생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하거나 성공하는 사람들도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도 그것이 일어 일어 수만은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를 하거나 다른 직장을 하면서 수입원을 만들거나 한다.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제2의 인생 1모작에서의 '출구전략'을 세워야 하겠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아야 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수 있는 '생애초기 통일운동'으로 OK 캠페인 열민도 통일운동을 실현할 것이다. 'One Korea 캠페인'은 국적이 없는 열민도 세계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말하는 'OK'라는 단어가 바로 One Korea의 시작이라는 착안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OK를 말할 때마다, 한국이냐 미국이냐 지구촌이냐 통일을 함께 실현하자'라는 발상입니다.

통일 운동은 OK 캠페인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며, 통일운동은 '한민도 통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민도 통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민도 통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일 운동은 OK 캠페인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며, 통일운동은 '한민도 통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민도 통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민도 통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일 운동은 OK 캠페인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며, 통일운동은 '한민도 통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민도 통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민도 통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계나어링 컨설팅		북 가주	GA 조제아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장영 / 컨설팅 두리하나 결혼정보 8년 전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공률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 할인 정지선(상대 58) (510) 224-0760 2910 Telograph Ave. Suite 200 Oakland CA 94609 www.2check1.com	라태일라/대동자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1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운동/유통/통관/면제		의료/전문/의사/간호사	IL-IN 사카고
SeAH Steel America, Inc. 유희/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 692-06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643	박희태 한의원 임희래(화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FOB Synthesis Inc.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은행/지점		비영리법인/해당 극지 에너지	의료 / 내외과 / 전문의 / 간호사
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문리 53) 213-389-9000 3700 Wilshire Blvd. #1700 LA CA 90010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O) 714-323-8612 (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 254-1871, 495 N. Whisman Rd. Ste. 300 Mt. View CA 94043	Suh Sang Hun, MDPC 서상헌(의대 65) (77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MD, VA 워싱턴DC	
SK Window 류철(대학원 74) 213-700-4119 901 E. 31 St. LA. CA 90011 ryuwoon2000@snu.net www.srwindow.net	LA Supply 전승택(사대 60) (562) 404-1502 13700 Resecan Ave. San Jose CA 95070	Fairney Asset Corporation 남택현(경영대 84) 301-279-6069 414 Hungerford Rd #203 Rockville MD 20850	* 이춘우 지과 이춘우(지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Suite #301 Niles, IL 60714
의료/약국		공인회계사	NJ-NY 뉴욕/뉴저지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644	C&C KJ Chow Chin CEO C&C Industries, Inc. 10000 Chino Ave. Suite 200 Chino, CA 91710 www.candc.com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2006	American Int'l Line, Inc. 김영희(공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의료/의과		개산관리/연호/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컴퓨터 Pro 홍재우(공대 83) (310) 626-6391 22950 Crestshaw Blvd. #R, Torrance, CA 90505	IPM Family Wealth Management 이태영(법대 60) (410) 777-9081 ext 58 345 N. Charles St. Baltimore MD 21201 talles@ipmri.com	Kenneth K. Lee CPA *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부동산 / 공제업	PA 필라델피아
Daniel D. Chung DDS, Inc. 정대연(치대 74) (714) 995-5000 8884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라 카나디 한인교회 특고 현(공대 65) 816-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Moon-Park & Associates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rpk #930 Annandale VA 22003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nd 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의료/내과/전문/의		병원 / 의과	건축 설계
Seonho Ha Prosthodontics 한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A. CA 90010 ddshap@yahoo.com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BPS Appraisal Company 박병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nton VA 20124	Timothy Haas & Assoc. 손재욱(생물과대 77) 49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 100 Blue Bell PA 19062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강남회관 Kang Nam Restaurant 323-337-1070 4103 W. Olympic Blvd. LA CA 90006	이준영 지과(치대 74) (301) 220-2628 (301) 926-8692 8301 Greenbelt Rd. Suit-H, College Park MD 20740 8831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원고 청탁

‘펼친후기’

은 역시 예뻐 보이네! 이 여자를
배필로 두어오는 대로 모두 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간 여왕
의 통치정치가 될 우려가 커서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순서
대로 개제하게 되는 데 개월이
걸릴 수가 있지요. 또, 보내
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사실상의
간한 것은 그같은 사건이나 행사
달(월)에 맞추어 개제하는 것이
바다 뜻이 깊습니다. 이른바 푸름
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가운데에는
이 같은 시시조가 밝아 그 시기에
맞춰 사조 12개월 쯤 중에 그에
대한 글을 보내오는 수 있습니다.
이런 글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성 바로 순서 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이 유념되면 한디나...*

각 지부 회장단

남기주	회장 자기회장	김심찬(문의 65) 714-503-1172 skcim1@yahoo.com
북가주	회장 자기회장	이정우(문의 72) 408-891-0200 president@snuua-nc.org 박희래(간호 73) 831-818-2959 acuheerle@hotmail.com
뉴욕	회장 자기회장	박상원(음대 69) 917-327-2989 sangparkny@g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부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cooihee@comcast.net 이경애(인문 73)
달라스	회장 부회장	최 연(공대 70) 817-919-3057 younchee@bcglobal.net 오영림(공대 73)
텍스 마운틴스	회장 자기회장	최상현(차대 58) 930-822-9370 703-755-1168 dryoee@aol.com
미네소타	회장 자기회장	범우진(인문 81) 952-926-0040 woodlam@yahoo.com
샌디에고	회장 자기회장	심상철(공대 81) 858-436-5496 sdunison@gmail.com 최홍수(자연 87) 858-259-5273 heungsoo.choi@nobbe.com
시카고	회장 자기회장	한익일(공대 62) 312-211-8557 eyul1hahn@gmail.com 김보현(상대 69) 847-657-8919 hkinimoo@gmail.com
애리조나	회장 자기회장	오유환(문리대) yhohe@raethon.com
알래스카	회장 자기회장	유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백석현(농대 58) 503-561-0818
오레곤	회장 자기회장	이성진(공대 89) 503-317-5625 seokjin.lee@gmail.com
오하이오	회장 자기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aol.com
워싱턴DC	회장 부회장	함은선(음대 77) 703-969-3006 samiaurai2010@gmail.com 장결대(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워싱턴주	회장 수석총무	김부용(음대 64) 253-228-4396 ctzn202@gmail.com 임원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ee@microsoft.com
유타	회장 부회장	배유환(공대 73) 801-474-1945 yoo.baeyul@gmail.com
조지아	회장 자기회장	박 민(음대 80) 770-449-0000 minparkg@yahoo.com 김정호(공대 74) 770-814-0618 jhkim@nabank.com
중부 텍사스	회장 자기회장	김성근(문리대 78) 512-750-4680 hschris@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수석부회장	한중희(공대 80) 484-354-3547 유기별(문리 64)
플로리다	회장 자기회장	최정식(의대 64) 954-599-3452 changjipark@dsum.net
캐롤라이나	회장 자기회장	정신희(자연대 78) 919-928-9696 sinho_jung@duke.edu 이성구(자연대 78) 919-610-2830 seon109@nc.rr.com
하와이	회장 자기회장	김용수(수학 75) 808-394-2369 ykim@hawaii.edu
하들랜드	회장 부회장	구영순(간호대 66) 913-268-0228 chungsung101@gmail.com 이성찬(의대 70) 918-867-1115 918-360-9178 wanlunada@gmail.com
휴스턴	회장 자기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캐나다 밴쿠버	회장 부회장	김홍자(자연대 62) 778-735-6659 honjakim@shaw.ca 조석기(상대 71) 604-688-4039 서철희(의대 71) 778-322-7732
캐나다 앨버타	회장 부회장	조용희(자연 82) 403-620-8261 dalhousiedo@hotmail.com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억대 회장

박윤수(문) · 감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용락
(공) · 오홍조(치) · 이영욱(공) · 이진구(농) · 송순영(문)

영예회장 : 김은종(삼)

제12대 회장 : 오인환(문)

차기 회장 : 손재욱(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 김인순(가정)
Project담당 부회장: 공순옥(간) 외 4명(미정)
상임고문: 박유수(문)·이영록(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정병희(공)
총무국장: 한정민(농)
조직국장: 박모자(음)
재무국장: 유홍열(자연)
사업국장: 김정식(농)
설외국장: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권철수(의)
IT개발위원장: 손재욱(가정)

회부 임원

출판인: 오인환(문)
주필: 박순범
편집위원: 장경태(사)
편집주간: 이기훈
편집위원: 정영의(광) · 서광호(의) · 이윤주(상) · 이해덕(상)
정병태(공) · 김정식(농) · 정승록(약) · 함문선(음)
이미래(경) · 각 지목 동향발 편집간사

논설위원장 : 이황열(법)

주최위원: 김일환(의), 고병철(법), 조동준(의), 이재진(문)
최종준(문), 정홍택(상), 윤상래(수의), 김광수(의)
치민영(의), 이석구(문), 김홍현(경), 유재봉(문)
장지영(법), 하용출(사회), 민경호(법), 이원익(경)

회칙위원회

위원장=한재은(의)
위원=서종민(공)·이민연(법)·윤상래(수의)
김지영(사)·신용남(농)·함은선(음)

감 사 : 박평일(농) · 주기목(수의)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 이기준 편집주간
snuausa1kj@gmail.com, snuausa12@gmail.com
*인쇄=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Korea-U.S. Science Coopera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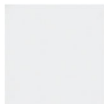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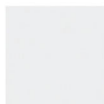


S&T Program Portfolio

- ✦ U.S.-Korea Joint Meetings
- ✦ KSEA Chapter Meetings
- ✦ Washington S&T Forum
- ✦ S&T Information Exchange
- ✦ S&T Professional Association Meetings

Professional Exchanges & Networking

- ✦ WEST Program
- ✦ Graduate Scholarship
- ✦ Korea Summer Institutes (KSI)
- ✦ Scholarship for Descendants of Korean War Veterans
- ✦ National Mathematics & Science Competition (NMSC)
- ✦ Young Generation Technical and Leadership Conference (YGTLCL)



Established in 1997 as a non-profit organization in the U.S.A, KUSCO has promoted and supported various programs to become a premier center for S&T cooperation and exchanges between the U.S. and Korea.

www.kusco.org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훈승(상대 74)

JoyLife
www.joylife.com

952-623-7460
952-623-7460

Facebook.com/joylifeusa

Twitter.com/joylifetrade

YouTube.com/user/joylifetrade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www.joylife.com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리인: 김재형(82년, 문리대) www.duo.co.kr



좋은사랑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는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브라이딩 브랜드: 규모와 인명,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듀오만의 핵심 프로그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배려와 정열이 나라: 친절하고 믿을 수 있는 커리어가 소개한 인연을 만듭니다.
• 한국 최정규: 전국 최다수의 인원을 만날 경우, 2년 6개월이 넘는 최장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NY 201-242-0505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HANS WORLD TRAVEL
7701 Little River Road, Suite 102, Atlanta, GA 30339
Toll Free 800-963-4767 / 770-458-7777 / 770-458-3110
www.hanstravel.com Email: hansworldtravel@hanstravel.com
www.hans.com/photo/hanstravel/0101011101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 멋진 여행자들



1월 2007년 지중해 3박4일 여행



2월 2008년 이집트의 나일 3박4일



3월 2009년 서울, 인천 여행



4월 2010년 제주도, 남해 여행



5월 2011년 제주도 3박4일 여행



6월 2012년 제주도 3박4일 여행



7월 2013년 아프리카 사파리 10박11일

한스와 함께 하는 패키지 여행

2013년

• 12/9(월)-12/19(목) INCREDIBLE INDIA 10박11일

델라바리나사-카유라호-이그라-자이푸르-델리

2014년

• 1/15(월)-1/23 (목) ANCIENT EGYPT & NILE CRUISE 10박11일

카이로-펠릭스-후루기다-룩소(Nile cruise 4박5일: 룩소-코플로-아스완)-아부심블-카이로

• 2/24(월)-3/6(목) ANCIENT EGYPT & NILE CRUISE 10박11일 (2차)

카이로-펠릭스-후루기다-룩소(Nile cruise 4박5일: 룩소-코플로-아스완)-아부심블-카이로

• 3/3(월)-3/15(토) HOLY LAND / EGYPT, ISRAEL, JORDAN 왕조순례 12박13일 예립트(야르도, 사해산)

-이스라엘(야르도, 사해, 예루살렘, 갈릴리) -요르단(암만, 페트라)

• 3/11(토)-3/21(금) PERU / AMAZON 열대의 신비 10박11일 리마 -아마존 -루스코 -마추픽추 -페라카스

-나스카라인 등 수수께끼 같은 잉카의 문명을 탐험

• 4/3(목)-4/15(토) GREECE / TURKEY 12박13일

그리스(아테네, 고린도, 에기나 섬) -터키(이스탄불, 가리파조이, 콘야, 파묵칼레, 안탈리아)

한여 열여 명

www.snuany.com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81 Torchia Road, Cold Spring, NY 10516. Tel: 917.324.2989 / 718.791.4397

snuany@gmail.com



뉴욕지역 동창회 이사회 공고

뉴욕 동창회 제35대 회장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한 음대 69학번 박상원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35대 이사회를 개최하오니 뉴욕 동창회 이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이사회는 부부동반을 환영합니다. 가족의 이해와 협조가 좋은 파트너로서 동창회를 적극 후원하고, 그래야 건강한 동창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과 명장 문옥주 선생의 판소리, 고전무용인들의 우아한 춤

사위는 이사회 분위기를 한 층 더 예술적 정취로 만들 것이며, 회의 중 가족들은 열 회의실에서 대체의학 운동 클리닉 송성문 박사의 건강증진 강의와 시연 및 실습으로 값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회의 내용도 충실하겠지만, 분위기를 동문으로서 우정을 나누고 전통 예술을 향유하며 건강증진도 도모하는 즐거움도 모일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디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2013년 9월 20일(금요일) 오후 6:00

▶장소: Double 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NJ

서울 대학교 뉴욕 동창회 회장 박상원 드림

ROBERT A. McCAFFREY REALTY INC.



“엄마야, 누나야, 허드슨 강변살자”

허드슨 강에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의 삶..., 박상원 에이전트가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Robert A. McCaffrey Realty, Inc

143 Main St. Cold Spring, NY10516

Tel. 845-265-4113, 917-324-2989

Sang W. Park 박상원(음대 69)